



### “여성 문제 함께 고민해요”

12일까지 영상복합문화관서 광주여성문화난장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은 9~12일 동구 서석동 영상복합문화관에서 2011여성축제 광주여성문화난장을 연다.

이번 여성축제는 내가 만드는 여성 친화마을 참여전시, 영화 '레드마리아'(사진) 상영과 축하공연, 여성소모임 활동결과물 전시 및 판매 등으로 진행된다. 경순 감독의 '레드 마리아'는 성매매 때문에 여성들이 필리핀,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떠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오는 12일 열리는 축하공연에는 좀 마밴드 '밥 하고 나왔어'가 흥겨운 공연을 펼치고, 이주여성소모임 '세상

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아시아 각국의 의상을 소개해준다.

이 주주여성소모임 '그루터기'가 아시아 전통 춤을 선보이고, 해피밤의 공연도 결속된다.

'이 밖에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우렁각시' 'EM 녹색센터' '한울공방' 등의 여성소모임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상품을 전시·판매한다.

광주여성재단 관계자는 "전시와 문화포럼, 공연이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다양한 여성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행사다"고 말했다.

문의 062-670-05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제 지역순회, 18~19일 강진아트홀

### '아이들' '할머니와 란제리' 상영

강진아트홀은 오는 18~19일 2011 영화제 지역순회프로그램 'gogo씨네마'의 일환으로 2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오는 18일 오후 3시 상영될 영화는 류미례 감독의 '아이들'이다. 이 작품은 아이들을 키우는 워킹맘이 겪는 좌충우돌 무한사랑 육아도전기를 일 거처럼 보여준다. 젊은 여성 및 아이를 키우거나 일을 병행해온 여성이

겪는 문제를 남성과 여성, 지역사회, 국가, 지방정부의 역할 등등을 살펴보고 논의해볼 수 있는 작품이다.

또 오는 19일 오후 3시 상영되는 베티나 오베를리의 '할머니와 란제리'는 노년여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이다. 스위스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벌어지는 남녀간의 전쟁을 다룬 코메디영화다. 문의 061-433-576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아시아, 스토리를 말하다'

문화체육관광부, 10일 국제워크숍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울교육문화회관 동강A홀에서 '아시아, 스토리를 말하다'를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연다.

오는 2014년 광주에 개관할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활용할 '아시아 100대 스토리'를 선정하기 위한

행사를.

고은 시인이 기조발제자로 나서고 S. 돌팍 몽골 국립대 교수, 네팸 민숙 학자, 스토리를 말하다'를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연다.

아시아 11개국의 스토리 관련 학자 등이 참가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아시아 문화전당 아트펜스 시민이 직접 예술 옷 입힌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진정한 의미의 문화중심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 3000여명을 모아 아시아문화전당 공사 현장의 아트펜스 제작에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소인 동구 광산동 13번지에서 착안했다.

보호막 구간을 맨션벽과 자석벽, 그래피티 배틀, 만인의 프레임 등 4개 구간으로 나눠 공공미술 전문가와 작가 20명, 3000여명의 시민이 함께 대형 벽화를 제작하게 된다.

문화재단은 11일 워크숍을 갖고 작업에 대한 기본정보를 공

스에서 '몸과 음식'을 주제로 시민과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작 프로그램과 다양한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오는 12일 오후 6시 이곳에서 열리는 '음식이야기1-홍어'는 홍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석자들이 홍어 요리를 나눠 먹는 이색 행사다.

목포대 인류학과 학생들이 우리민족이 홍어를 먹게 된 과정과 역사 등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한다. 또 홍어 요리 전문가가 홍어를 현장에서 해체하면서 부위별 조리법을 알려주고 요리할 음식도 나눠먹는다.

13일에는 참석자들에게 빵 굽는법을 알려준 뒤 함께 빵을 만들어 먹고, 19일에는 참치 전문 요리사가 참치를 부위별로 잘라주는 시식회를 결한다.

박찬국 디렉터는 "단순히 시민이 참여하는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작가의 작업을 함께 고민하고 감성을 끌어내는 작업에 주안을 두고 작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하고 싶은 시민이나 단체, 학교는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의 공고란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3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추진단·문화재단, 보호막 공공미술화 사업 진행

### 작가 20명·시민 3000명 참여 19일까지 벽화 제작

시민과 지역 작가들이 아시아문화전당 공사 현장의 아트펜스에 예술의 옷을 입힌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광주문화예술재단은 8일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장 보호막 공공미술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13번지 드로잉 페스타 사업'으로 이름을 붙인 이번 사업은 2억 900만원의 들여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장을 둘러싼 길이 1.3km, 높이 6m 규모의 공사 보호막에 그림을 그리는 공공미술 프로그램이다. 13번지는 옛 전남도청의 주

유, 작품 주제와 작가 및 자원봉사자들의 협업 방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12~19일 시민·예술가 집중 작업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3일 이전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기문화재단이 남양주시와 함께 광릉 숲둘레 마을에서 벌인 '논아트 발아트' 프로젝트를 총지휘한 박찬국 디렉터가 맡아 진행하고, 작가와 시민들의 협의를 통해 세부 작품안 등을 정하게 된다.

또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 마련된 현장 사무실 성격의 비닐하우스



김평준 작 '도시사람들'

### 엮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무등현대미술관 20일까지 '국제드로잉-감성의 흔적 II'전

회화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습작 과정으로만 여겼던 드로잉이 주목받고 있다. 드로잉 작품에는 작가의 호흡과 현장의 감동이 생생하게 담겨있고, 기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무등현대미술관은 오는 20일까지 '국제드로잉-감성의 흔적 II'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인도 등 5개국 작가들이 참여해 드로잉의 정수를 보여준다.

김평준·박혜순·배상순·변승훈·신

문용·정송규·조혜숙·황영성씨와 미국의 데스포 마고니(Despo Magoni)·영국작가 마이클 윌튼(Michael Whittle)씨, 인도의 파람지 싱(Paramjit Singh)씨, 일본의 야마모토 코지(Yamamoto Koji) 등이 개성적인 작품을 선사한다.

연필, 콘테, 목탄, 크레용, 먹, 오일 스틱 등 다양한 재료가 풍기는 고유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문의 062-223-667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조윤성 작 '씨앗으로 부터'

### 광주지역 작가들 16번째 작품전

'아트그룹 라이브' 10~16일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광주지역 작가들의 모임인 '아트그룹 라이브'는 오는 10~16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16번째 단체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동권·김용안·김재성·김종일·김준모·문형선·박용환·이승일·조윤성·장원석·최정희·최지훈·표인부·한부철씨 등이 참여

해 '무한도전'(無限圖展)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조윤성씨는 기호화된 사물들과 세심 풍경을 화폭에 담았고, 표인부씨는 바람이 흔들리는 듯 사물을 흐릿하게 표현한 신작을 발표한다. 문의 062-222-805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여수-대명리조트 사업기념 특별회원 한정모집!

# 국가적 사업! 대명그룹도 힘 보탠다!

대명리조트에서는 이번 여수 세계박람회기간내 민자호텔유치 성공기념으로 회원권 하나로 골프, 스키, 오션월드, 아쿠아월드와 전국 10여개지역의 리조트를 언제나 별장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수사업 착수기념 특별회원'을 한정 모집 한다. 주 5일근무제 변화에 발맞춰 고객의 입장에서 제일 우선시 되는 혜택과 실용적인 서비스를 위해 준비된 국내 최초의 '통합 리조트 멤버십' 회원권을 모집한다.

회원가입 시 골프, 스키, 오션

월드 및 각 지역 아쿠아 시설의 무료 및 할인혜택이 부여되며 가입과 동시에 전국의 대명리조트 8곳(설악, 경주, 양평, 홍천, 양양, 변산, 단양, 제주)지역리조트와 2곳의(해운대, 도고)제인콘도 및

홍천, 설악 퍼블릭 골프장을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4곳의 호텔 및 제주 크라운CC, 제주 제피로스 CC, 제주 예코랜드 CC, 경북예천 한택 CC를 합친가 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법인회원

을 위한 세미나실, 연회장, 각종 부대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비즈니스에도 활용도가 높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위치한 대명리조트 거제(2013년 오픈예정)가 작품에 들어가 있고, 2012년

해양엑스포가 열리는 여수에도 대명리조트 여수(2012년 오픈예정)가 예정되어 있어 국내 최고수준의 4계절 종합 해양 리조트로 탄생할 예정이다.

대명리조트는 이용 시 불편함

이나 번거로움이 전혀 없도록 각 회원담당자가 최초 계약에서부터 예약관리까지 철저하게 1:1 담당제로 회원을 관리한다. 모든 회원들이 최고의 품격을 가지고 가족과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별회원모집에 대한 분양 안내책자(카드로그)를 받아보고 싶으면 대명리조트 본사로 문의를 하면 자료 수령 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4시간 상담 가능)

본사 : 02-2052-0001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올 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 오찬정식 15,000원 ● 30년 전통의 한정식 : 25,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흙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